

<2023년 7월 5일 수요일말씀>

‘이 시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본 문 :

<마태복음 13장 16~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일말씀에 이어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생각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운명이 뒤바뀐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인 만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일체 되어

‘영의 깊은 비밀’을 충격적으로 깨달으며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2023년 6월 28일 수요말씀과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 39.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고 행하면 10배, 100배 얻는다.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 40. 사람 생각의 말은 듣지 아니하여도 오히려 해(害)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생각의 말씀은 안 들으면 형벌과 대가를 언제 받아도 받는다.
- 41.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맞지 않게 사는 자는 사망권에 사는 자다. 끝까지 그같이 살면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죽어, 영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 42. 사람이 생각을 악하게 하면 망한다.
- 43. 사람이 생각에 따라 악인도 되고, 선인도 된다.
- 44. 저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생각을 갖도록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 45. 삼위와 예수님과 일체 되면,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 와닿아 알게 된다.
- 46.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생각이 마음에 와서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생각하면 성령님의 생각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예

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에 깨달아진다.

47. 평소 범사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자는 생활 중에 대화도 하여라. 그리하면 마음으로 대답도 해 주시고, 합당한 것은 생각나게 하시기도 한다.
48. 생각을 할 때 육계의 한계를 넘어서 영계까지 들어가서 생각하면, 영의 세계가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 4차원 세계다. 더 들어가면 5차원, 6차원, 7차원 영의 세계가 보인다.
49.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하나님 신같이 그 대상체인 사람도 신령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존재다.
50. 정신일도(精神一到)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을 중심하여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영안이 열려 육의 세계도 영의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보게 되고, 영의 세계도 보여 그 실상의 비밀을 알게 된다.
51. 하나님께 깊은 것을 깨우쳐 달라고 하면, 합당하면 깨닫게 해 주시고 보여 주신다. 보고 온전하게 비밀을 알고 행하여 10년, 20년간 몰라서 못 한 것도 하게 된다.
52. 생각이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에 대해 생각을 하니, 계속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잠언을 주셨다. 모두 알고 행하라고, 천 년 동안 보라

고 이같이 써서 기록한다.

53. 생각 깊이 하고 영의 세계를 보면, 사탄과 귀신과 자기를 속이는 악한 자의 행위를 모두 본다. 보고 기도하여 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고해 심판받게도 하니 예수님이 사자들과 천사를 보내어 찢고 쪼개어 처벌해 버린다.

54. 생각 깊이 하면, 성령이 함께하여 깨닫게 해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신다.

55. 깊은 기도를 할 때나 평소 주 생각과 일체 되어 하면, 생각으로 삼위와 예수님의 계시도 받는다. 어느 때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도 받는다.

56. 생각 실상 세계다.

57. 생각하는 대로 실체가 보이기도 한다.

58. 생각의 눈을 떠라.

59. 생각과 정신을 일도(一到)하여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알어드리고 시인하고 고해 보라.

60. 생각에 잡생각이 들어가면, 잡생각 때문에 생각이 제재를 받아 혼수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 단계를 넘어 잠재의식 단계에 생각이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때는 생각하는 대로 그

차원이 보인다.

항상 주와 동행이다. 성령과 동행이다. 그래야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들의 주관이나 꾀를 자기 혼이나 영이 안 받게 된다.

61. 자기 혼이나 영이 영계에서 다니며 봐야 한다. 그 전에 먼저 자기 생각이 온전하게 영계에 들어가야 한다.

62. 생각이 평소 온전해야, 그 행위대로 그 차원의 영계를 제대로 본다.

63. 생각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일체 되면, 대화하게 된다. 그 단계도 영계에 들어간 것이다. 꼭 영이나 혼이 영계에 들어갈 때만 영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생시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 혹은 예수님과 대화하면, 침단의 영계 차원에 들어간 것이다.

64. 말씀 받을 때 모두 영계에 깊이 들어가서, 생각도 영계에 있고 육도 영계에 들어간 것이나 같다. 그렇지 않으면 영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는다.

65. 생각이 잘못된 자는 잘못된 말씀을 받는다. 거짓된 말씀, 속는 말씀, 귀신과 마귀의 말씀을 받게 된다. 모르면 누구나 속는다.

66. 마귀, 귀신, 악한 자의 생각 차원보다 위에 있으면, 안 속고 그 주관을 안 받는다.

67. 생각이 절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일체 돼 있으면, 마귀와

귀신과 악한 자를 영계로 늘 보여 준다.

68. 일을 맡겨 놓고 그 생각이 의심스러워 영계로 보니, 섭리사를 불신하고 나간 자들의 영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내게 왔다. 그중 하나가 “그렇게 나 의심하지 말라.” 하며 내게 말했다. 나머지는 “알다시피, 싫어 배반하고 나왔다.” 하고 더 이상 말도 안했다.

말하는 자에게 “너 옷 입은 것만 봐도 네 행위를 안다. 귀신, 마귀들이 입는 정장 옷을 입었구나. 간사한 영들과 여우 짓 하나? 불여우냐?” 했다. 또, 속으로 꿰뚫어 보고 “네 행위가 옷으로 나타나니 더럽고 추한 거짓된 행위가 다 보인다. 속까지 보인다.” 하니, 순간 사라졌다.

하나님께 ‘저것들이 나 속이고 있으니, 그것만 제거해 달라.’ 고 하며 ‘좋은 것을 행해 덕이 되게 해 달라.’ 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속지 말아라.” 하셨다.

일부는 속였고, 다른 일부는 속이면 드러날까 봐 안 속였다. 이 같이 영계에 들어가면 행위가 보인다.

69. 하나님은 자기 종이나 선지자나 사명자들이나 구원자에게 속지 말라고 먼저 보이시고, 같이 행하신다.

70. 생각을 항상 집중하여야 한다. 육으로만 보면 속는다. 영으로 보면 안 속는다.

71. 생각과 인식이 무지하면, 자기에게 귀신, 악마, 피는 영이 와서 피어 자기를 그들의 육체로 삼고 써도 모른다.

72. 특히 마음 변한 자, 배신한 자들에게 귀신과 마귀가 들어가 그 육을 쏜다.
73. 어떤 자는 영계에서 보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몸속에 독한 뱀이 들어가서 숨어 있다.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 보이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74. 생각이 깨어 있어, 항상 사탄, 마귀, 귀신과 악한 자와 불신자에게 속지 말아라.
75. 생각이 졸지 않게 하여라. 죽음의 잠을 자면 마귀가 온다. 악한 자, 배신자가 귀신으로 변해서 온다.
76.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77. 생각 안 하고 사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
78. 생각을 하고 행해야 얻는다.
79. 생각이 강해야 이긴다.
80. 생각이 약하면 패한다.
81. 하나님과 일체 된 생각을 하면, 생각이 강하여 겨루는 자를 이긴다.

82. 미친 자들, 생각이 강하다. 귀신과 사탄이 함께해서다.
83. 하늘을 속인 자는 천국이나 황금 천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용납을 안 하신다.
84. 속일 때는 좋으나, 속인 후에는 쫓겨나 사망이 자기 처소가 된다.
85. 하나님, 성령님, 주께 해를 주는 자는 예정된 대로 다른 길이 없다. 그 생각이 악하고, 거짓되게 행해서다.
86. 어제까지 하나님의 시대 주관권에 있던 자라도 밤새 마음이 변하면 바로 사망의 더러운 옷을 입고 흑암 세계의 영과 혼이 된다. 영계로 보면 알지만 육은 속인다. 속인 것을 알 때까지는 육은 모른다. 기도하고 그 혼이나 영을 보면 안다.
87. 배신자의 영은 성경대로 사탄과 악마들 주관권의 영이 되어 딴 세계에 산다. 고로 영계에서 보면, 육이 아무리 의롭게 행하고 건건하게 행하여도 영을 보고 안다.
88. 육이 거짓되면 영도 거짓되다.
89. 사망으로 갔어도 ‘순간 유혹되어 갔나, 혹은 서운함 타고 순간 생각이 잘못되어 갔나.’ 를 보며 기도해 주면, 성령이 감동시켜 이끌어 오기도 하신다.

90.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자는 생각의 문을 통해 들어오니 절대 문 열어 주지 말아라. 문 열어 주지 않고 방문 앞에서 기다리다, 방에서 생각의 문틈을 통해 가늘고 긴 쇠꼬챙이로 눈을 찌시어라. 아는 자에게 사탄도 들켜 도망가고, 악인도 쇼크 받고 도망간다. 사탄도 알아야 다스린다.
91. 영계에서 배신자와 불신자의 영들을 보니, 사막의 미라같이 되어 다니거나, 늙은 자의 형상으로 피골상접하여 다녔다. 얼굴이 다 해진 걸레 같고, 몸도 볼 수가 없었다. 옷은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났고, 갓은 부끄러운 옷들을 입고 다녔다. 그들은 후회하고 탄식하며 지옥 고통을 받았다. 육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구원시켜 놓으니, 오히려 제 기회를 쫓아 행하다가 그같이 된 것이다. 회개하고 오라고 하여도 생명들을 피어 나가더니, 모두 생명을 사냥한 자와 같이 된 것이다.
92.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뇌신경이 느껴, 몸이 행한다.
93.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으로 뇌신경이 자극받고 모든 행동도 하게 된다.
94. 소변 누고 싶다고 생각하면 소변이 나오고, 물 먹고 싶다 생각하면 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어서 물을 먹게 된다. 이같이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이 실상이 된다.
95. 생각이 ‘누가 좋다. 사랑하고 싶다.’ 하면, 마음이 하고 싶어

행하게 된다.

96. 사람이 미운 짓 하여 미운 생각이 생긴다.

97. 더우면 생각이 자극받아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간다.

98. 더워도 생각이 덥지 않다고 생각을 강하게 하면, 덥지 않다.

99. 모두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자리를 떠나도 ‘나는 안 춥다.’ 하고 생각을 강하게 하면, 안 춥다는 생각대로 마음이 바뀐다.

100.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 남자들이 모두 “저 여자를 나는 예쁘다고 안 본다.” 하고 말하는데도, 한 남자는 너무 예쁘다고 하며 그 여자와 결혼하여 평생 살겠다고 했다.

나쁜 자라도 모르면 좋아한다. 생각이 좋아해서다. 생각보다 눈이 먼저 보고 맘에 드는 것을 봐서다. 딴 자가 못 발견한 것을 찾아서다.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 실상 모순이 크게 있는데도 그것이 눈에 안 보이고 생각을 못 하게 된다. 이것도 생각을 잘못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와 같이 “생각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101.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102. 수석 한 부분에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얼굴 형상이 있다면, 나

머지는 별 모양이 없어도 그 얼굴 모양을 보고서 나머지 모양도 좋아하며 산다. 어떤 자는 얼굴 형상이 있는데도 그 몸의 모양이 없다고, 생각이 좋아하지 않아서 수석을 안 샀다. 이와 같이 저마다 생각으로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며, 생각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한다.

103. 열 명의 여자가 있는데, 각각에게 한 남자의 외모만 보이면서 ‘좋으냐? 싫으냐?’ 하고 물었더니, 다 그 남자를 좋아했다. 다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자라고 단점을 말해 주고 좋으냐고 물으니, 한 명도 안 좋다고 했다. 외모보다 마음과 행위의 갖춘 것을 중히 여겼다.

104. 수석이 하나 있어, 수석 좋아하는 자들에게 보였다. 값은 100만 원이라고 했다. 멋있게 생겼다. 100명에게 보였더니, 다 사가겠다고 했다. 수석을 아는 자가 “이 수석은 약해서 잘 깨지고, 실금 간 것이 육안으로 잘 안 보이나 몇 군데 있다.” 라고 하니,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안 사겠다고 했다. 사람도 모양보다 생각과 마음을 보고 택해야 유익이다. 외모는 시간 가면 늙어 가서, 모두 비슷한 때가 되면 가을의 식물 잎 같이 쪼그라든다.

105. 사람이 생각으로 살아가니, 생각이 아주 좋아야 된다. 생각이 보물이다. 생각이 생명이다. 생각이 최고의 값이다.

106. 수석은 강도를 최고로 보고, 그다음 생긴 모양을 본다. 강도만 강하면 모양이 없어도 보석으로 취급한다. 사람도 생각의 강도

가 강한지를 본다. 몸이나 생긴 모양은 생각을 좋게 하고 노력하면 아름답게도 만든다.

107. 생각이 약하고 좋지 않으면, 아름답고 예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못 해 가치 없게 써서 자기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108. 사람의 생각 자체는 노력하여도 인간의 한계를 못 넘는다. 가령 쌀을 가지고 음식을 수십 종으로 만들어도 역시 본질은 쌀의 성분이다. 이같이 사람은 자체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셔야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신의 차원의 상대가 되어 구원도 받고, 신이 되어 영원토록 살게 된다. 생각도 인간 생각 자체로는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

109. 쌀에다 콩이나 팥이나 보리를 더하면, 쌀의 한계를 넘어가 존재한다. 사람도 그 한계를 벗어나려면, 전능자 하나님과 일체되어 함께해야 신의 차원에 가서 살게 된다.

110.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받으며 큰소리를 평생 쳐도 구원 못 받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나, 구원받은 자가 보나 육신 일생과 영 영원토록 불쌍한 자다. 사람이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생각이 무지한 자다.

111.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희망찬 사랑의 일이 너무 많다.

112. 생각이 무지하면 만사의 길이 막힌다.
113.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생각을 그릇되게 하면, 그 영향을 100% 받고 해를 그만큼 본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하고 지켜라.
114. 생각하는 대로 예쁘게도, 밍게도, 아름답게도, 신비하게도 보인다. 생각 실상 세계다.
115. 생각은 기분 따라 착각도, 착시도 일으킨다.
116. 생각의 뇌를 버린 자는 자기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딪혀 다치거나 떨어져서 굴러가면, 뇌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117. 생각들이 하나면 평화요, 다르면 싸우게 되고 쪼개지게 된다.
118. 사람의 생각이 그릇된 것에 중독되어 사고가 굳어지면, 자기 몸을 죽여도 좋아하며 죽인다. 그릇됐어도 생각이 좋으면 죽는 것도 한다.
119. 하나님에 대해 사랑도 알고 그 뜻도 아는 자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한다. 두렵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어떤 자는 ‘하나님 믿고 살면 제재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하니 자기 생각대로 못 사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한다.

120. 똑같은 사람도 생각에 따라, 땅과 하늘 같은 차이 나는 생각을 한다.

121. 하나님께 자기가 잘되게 기도하든지, 섭리사가 잘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느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잘되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잘되게 그 기도를 듣고 행하시며, 자신의 뜻을 펴는 데 쓰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잘되기 때문이다. 저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것을 잘되게 해 주면 자기에게서 끝난다.

122. 가령 하나님께 돈을 천만 원 드리면서 “나 좀 잘되게 하는 데 귀히 써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앓을 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음식을 사다 주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합당한 데 쓰신다. 그리고 돈을 준 자도 같이 그것을 평생 쓰게 해 주신다.

123. 월명동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를 해도 ‘이것을 이같이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하면, 하나님은 듣고 최고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 그리고, 감사한 자는 감사한 대가로 거기에 와서 살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고 월명동같이 만든 후에 “여기 와서 너도 써라.” 하신다.

가령 저마다 원하는 것을 각각 해 줬으면, 하나님의 구상대로 못 만들고 시멘트 계단을 만들거나 각자 집들을 짓고 살았을

것이다.

124. 하나님은 저마다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받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데 쓰신다. 그리고 기도한 자를 감동시켜 하나님이 만든 곳에 오게 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같이 살게 하신다.

125.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주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한다.

126.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은 믿는다고 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고 “그에게 잘못이 있다. 그 말이 안 맞다.” 했다. 고로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은 믿었다. 하지만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시키는데, 그 구원을 못 받았다. 구약에서 약속한 그들의 소망을 전혀 못 이뤘다.

항상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를 안 믿고 배척하지, 그를 보낸 근본자는 배척을 안 한다. 모르고서 보냄을 받은 자를 안 믿어도, 그 형벌은 받는다.

127.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 뜻도 못 펴고, 구원도 없다.

128.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뜻을 펴시려고 다시 오신다.’ 는 것은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뜻을 이루려 보낸 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믿다가도 시험이 오면 안 믿고, 또 모순이 있다고 안 믿는다. 그리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갖은 욕도 한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그 욕을 믿어야, 그 시대에 약속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를 믿는 것이 그를 보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안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격이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대상이 안 되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못 받는다.

129.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자는 보이는 욕 있는 자를 보내어서, 보이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같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하셨다.

130. 예수님은 자기가 보낸 자들, 제자들의 말을 안 믿으니, 자기 말도 안 믿겠다고 하며 가지 않으셨다. 보낸 자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을 줘서 전하게 하셨다.

131. 왕이 보낸 신하의 말을 안 들으면, 왕의 명을 안 들은 자로 취급하고 왕은 대한다. 이와 같이, 하늘이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전능자 삼위를 배척한 자로 대하신다.

132.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를 모르고, 몰라서 그리 대했어도, 그 행위대로 받는다.

133. 온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행하다 사고 나고, 죽고, 손해 가고

끝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알고 믿으라고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끝까지 안 믿으면 거기서 끝나 운명이 결정된다.

134. 생각해 보고, ‘생각 잘했나?’ 확인해 보고 행하여라.

135.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도, 생각해 보고 확인하고 행하여라. 본 대로, 들은 대로 믿지 말고, 다시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여라. 잘못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하면, 그로 인해 지옥의 날들이 닥친다.

136.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대한 대로 대해 준다.’는 것이다.

137. 예수님의 생각은 도우시는 생각이다. ‘말씀을 지켜서 화를 벗어나고 축복 받으라.’는 말씀이다.

138. 성령님의 생각은 ‘늘 감동을 주니 할 일은 하고, 하지 않을 일은 그때 감동을 주니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다.

139. 사명자인 선생의 생각은 ‘들은 말씀을 절대 끝까지 믿고 따라라. 그리하면 너도, 너희 집도 구원을 얻고 영원한 황금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다.

140.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치 말아라. 그로 인해 화가 온다. 확인하고 하여라.

141. 생각을 완전하게 하여, 앞날까지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나 보고 행하여라.
142. 과거에도 한 가지만 보고 생각하고 행하다 지옥 고통을 받았던 것들을 명심하고, 또 반복하여 행하다 지옥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라.
143. 사람이 자기 얻을 것 한 가지만 유일하게 생각하고 행한다. 그러다 그로 인해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지옥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실수하여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144. 사람은 자기 생각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생각을 무지하게 하고 살면,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지옥 고통도 받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되고 망하게도 된다. 생각으로 얻게도 되고, 잃기도 한다. 그러므로 생각이 생명이다. 생각을 잘하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주와 하나 되어 행하여라.
145.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성령과 주의 뜻대로 하고, 진정 원하여서 행하기다.
146. 생각이 인간 각자에게 최고의 보물이다.
147. 생각난 것 모두 좋아 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행한 것으로 인해 지옥 고통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생각하여라.

148. 사람은 생각을 잘못해서 패하고 망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도우시는 삼위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듣고 끝내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주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